주간 테러동향
Weekly Terrorism Trends

'20.6.26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 Weekly Terrorism Trends

미 주

○ **美, 사회혼란 틈타 극우세력 「부걸루」 세력 확장**

- 6.17 美 언론은 흑인 사망에 대한 항의시위 중 경찰관을 총격 살해한 사건과 연계된 극우세력 '부걸루'*가 △총기 규제법 반대시위, △코로나19 봉쇄 반대집회, △흑인 사망사건 항의시위 등에 잇따라 등장하며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고 보도

  * 보수주의·개인주의·백인우월주의를 지지하며, 총기보유 권리를 적극 옹호

○ **UN, 「제20차 대테러 협의회」 개최**

- 6.20 UN 대테러사무국은 화상회의로 제20차 협의회를 개최하여 '19년 연례보고서 보고, 회원국간 테러용의자 기소 문제 및 테러리스트와 그 가족 회생 지원 등 신규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 진행

  * 유럽연합 등 21개 회원국 참석(현재 의장국은 사우디아라비아)

○ **美, 「ONA」와 연계된 현역 군인 기소**

- 6.23 BBC는 미군 병사 「에단 메즐리」(22, 이등병)가 부대원을 살해하기 위해 나치 등을 추앙하는 'ONA'*에 해외임무계획 정보를 넘기다 FBI에 발각, 살해 공모 및 테러단체 조력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보도

  * ONA(Order of the Nine Angles) : '60년대 영국에서 설립되었으며, 나치(아돌프 히틀러)·이슬람 지하드(오사마 빈라덴) 및 사탄·악마를 추앙하는 단체

중 동

○ **이라크, ISIS 은신처 파괴**

- 6.21 이라크 정부는 19일 이라크軍과 美 중부사령부의 연합작전을 통해 키르쿠크州에 소재한 ISIS 은신처 3곳을 무력화했으며, 해당 지역의 치안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

유 럽

○ **佛,「테러 콘텐츠 소지자 처벌법」위헌 결정**

- 6.19 프랑스 헌법재판소는「테러 콘텐츠 소지자 처벌법」이 테러에 동조할 생각이 없는 사람까지 처벌할 우려가 있고,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사법권 일탈·남용에 해당한다며 위헌 결정

  * 同 처벌법은 벌칙으로 최대 10년 징역, 75만 유로(약 10억원) 벌금 부과 가능

○ **英, 도심공원 무차별 흉기난동사건의 테러 관련성 수사**

- 6.20 英 현지언론은 레딩시의 한 공원에서 리비아 출신 남성(25)이 무차별 흉기를 휘둘러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당했으며,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해 테러 관련성 여부 등을 수사 중이라고 보도

○ **佛, 자국 출신 ISIS 조직원 자녀 10명 수용**

- 6.22 프랑스 외무부는 시리아 북동부 난민촌에 거주 중인 자국 출신 ISIS 조직원의 자녀 10명을 인도적 차원에서 귀국 조치하였다고 발표

  * 난민촌에는 미성년자 8천여명을 포함 ISIS 조직원·가족 등 1만2천여명 거주 중
  * 프랑스는 현재까지 ISIS 조직원의 자녀 28명을 수용·입국

○ **佛, '석방된 테러범에 대한 감시법안' 국회 통과**

- 6.23 프랑스 현지언론은 석방된 테러범에게 전자발찌를 착용하여 최장 10년까지 감시할 수 있는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되었으며, 7월 초 상원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

  * 향후 석방 예정인 테러범('20년 31명, '21년 62명, '22년 50명)에 대비하여 제정

아 · 태평양

○ **아프간, 탈레반 공격으로 보안요원 291명 사망 발표**

- 6.22 아프간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1주간 탈레반 반군에 의해 지역 보안요원 291명이 사망·550명이 부상당했으며, "탈레반이 폭력을 줄이겠다고 약속을 했으나 그 의미가 상실되었다"고 발표

역사 속 테러사건

Weekly Terrorism Trends

파키스탄 재래시장 폭탄테러

○ ’17.6.23 오후 파키스탄 북서부 파라치나르州의 재래시장에서 연쇄 폭탄테러로 38명이 사망하고 120여명이 부상

- 당시 시장에는 라마단 기간 금식 후 첫 식사인 ‘이프타르’와 명절 ‘이드 알피트르’를 준비하기 위해 많은 인파가 모여 있었고

- 첫 번째 폭탄이 터진 뒤 부상자들을 돕기 위해 사람들이 모이자 두 번째 폭탄이 터져 피해가 가중

○ 「나와즈 샤리프」 총리는 “군인·경찰이 아닌 시민을 노리고 있다, 진정한 무슬림이라면 이런 끔찍한 테러를 저지를 수 없다”며 비난

○ 사건 이후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「파키스탄 탈레반」(TTP)의 강경분파 「자마툴 아흐라르」(JuA)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

* 파키스탄은 수니파가 다수(77%)이지만 파라치나르州는 시아파가 다수이며, ‘파키스탄 탈레반’과 ‘자마툴 아흐라르’에 의해 시아파 대상 테러가 빈번히 발생

테러 상식

Weekly Terrorism Trends

< 자마툴 아흐라르(JuA) >

■ **(목표/이념)** 파키스탄 세속정부 타도 및 서남아 內 샤리아(이슬람 율법)에 근거한 신정국가 건설 / 이슬람 극단주의

■ **(설립배경)** ’14.8 파키스탄 탈레반(TTP) 지도자 사망(’13.11) 후 후임 지도자가 파키스탄 정부와 평화협상을 진행하자 이에 반발하여 결성
* 테러단체 지정 : 영국(’15.3), 미국(’16.8), UN(’17.7)

■ **(활동지역)** 파키스탄 북서부 연방직할 부족지역(FATA) 및 아프간 접경지역

■ **(연계세력)** 알카에다, 탈레반, 파키스탄 탈레반(TTP), 라쉬카르 에 타이바(LeT)

■ **(주요활동)**
- ’14.11 펀잡州 라호르市 국경검문소에서 자폭테러(60명 사망, 120명 부상)
- ’16.8 발루치스탄州 병원에서 자폭테러(경찰·언론인 등 75명 사망, 112명 부상)
- ’19.5 펀잡州 라호르市에서 자폭테러(10명 사망, 25명 부상)